

2024.06.17.(월) 증권사리포트

하이비전시스템

깊고 넓어지는 성장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24년, 지속되는 실적 성장

동사의 24년 실적은 매출액 3,766억원(YoY 8%), 영업이익 678억원(YoY 15%)을 전망한다. 주력 고객사의 카메라 스펙 변화 영향으로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한 23년에 이어, 지속되는 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폴디드 줌 채택 확대 국면 속 카메라 모듈 업체의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고객사 생산 시설의 지역 다변화 추진으로 인한 신규 수주도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D 센싱 모듈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MR 기기 시장 개화의 수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동사는 1분기 매출액 482억원(YoY 30%), 영업이익 56억원(YoY 27%)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전년 대비 낮아진 자회사 이익기여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넓어지는 타겟 시장

동사는 카메라 검사 기술 외에도 영상 처리 및 모션 제어 기술, 부품 조립 기술 등을 내재화해 다양한 산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23년 이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첫 수주에 이어 올해 1분기 93억원 규모의 배터리 생산라인을 추가로 수주했다. 올해는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로의 진출이 주목된다. 최근 동사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라온텍과 웨이퍼 후공정 AOI(Automatic Optical Inspection)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동사의 AOI 장비는 0.5μ μ 단위 검사를 고속으로 수행 가능하며, AI 딥러닝 및 광학계 등의 기술을 내재화해 웨이퍼 AOI 산업을 주도해온 해외 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바이알 시약병 제품을 고속으로 정밀 검사하는 자동화 검사 설비도 개발을 완료했다. 1분기 국내 고객사 대상 초도 양산 설비를 수주하였으며, 하반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복합 장비 기업으로 변화, 기업가치 리레이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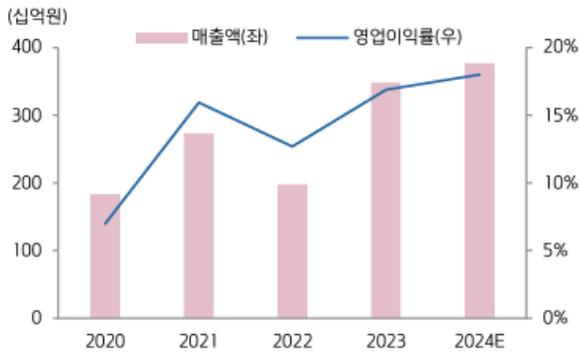
기존 모바일 부문 장비 매출에 기반한 견조한 실적에 이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과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 부문 장비는 향후 중장기 성장성도 큰 만큼 동사 기업가치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주가는 24년 기준 PER 6.3배이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272.9	197.7	348.3	376.6
영업이익	43.5	25.1	58.8	67.8
EBITDA	45.6	27.8	62.1	71.5
세전이익	53.6	26.7	60.2	73.4
순이익	45.3	24.6	49.7	62.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3.3	24.0	45.9	59.6
EPS(원)	2,896	1,608	3,072	3,988
증감률(%YoY)	313.0	-44.5	91.0	29.8
PER(배)	8.2	11.3	6.3	6.3
PBR(배)	1.98	1.36	1.23	1.31
EV/EBITDA(배)	5.9	8.2	4.1	4.3
영업이익률(%)	15.9	12.7	16.9	18.0
ROE(%)	27.7	12.6	21.1	22.8
순차입금비율(%)	-49.5	-30.1	-23.4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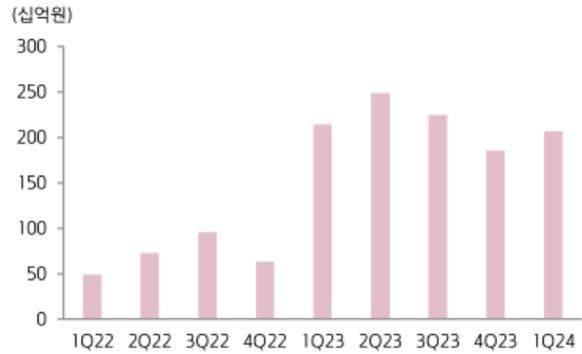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하이비전시스템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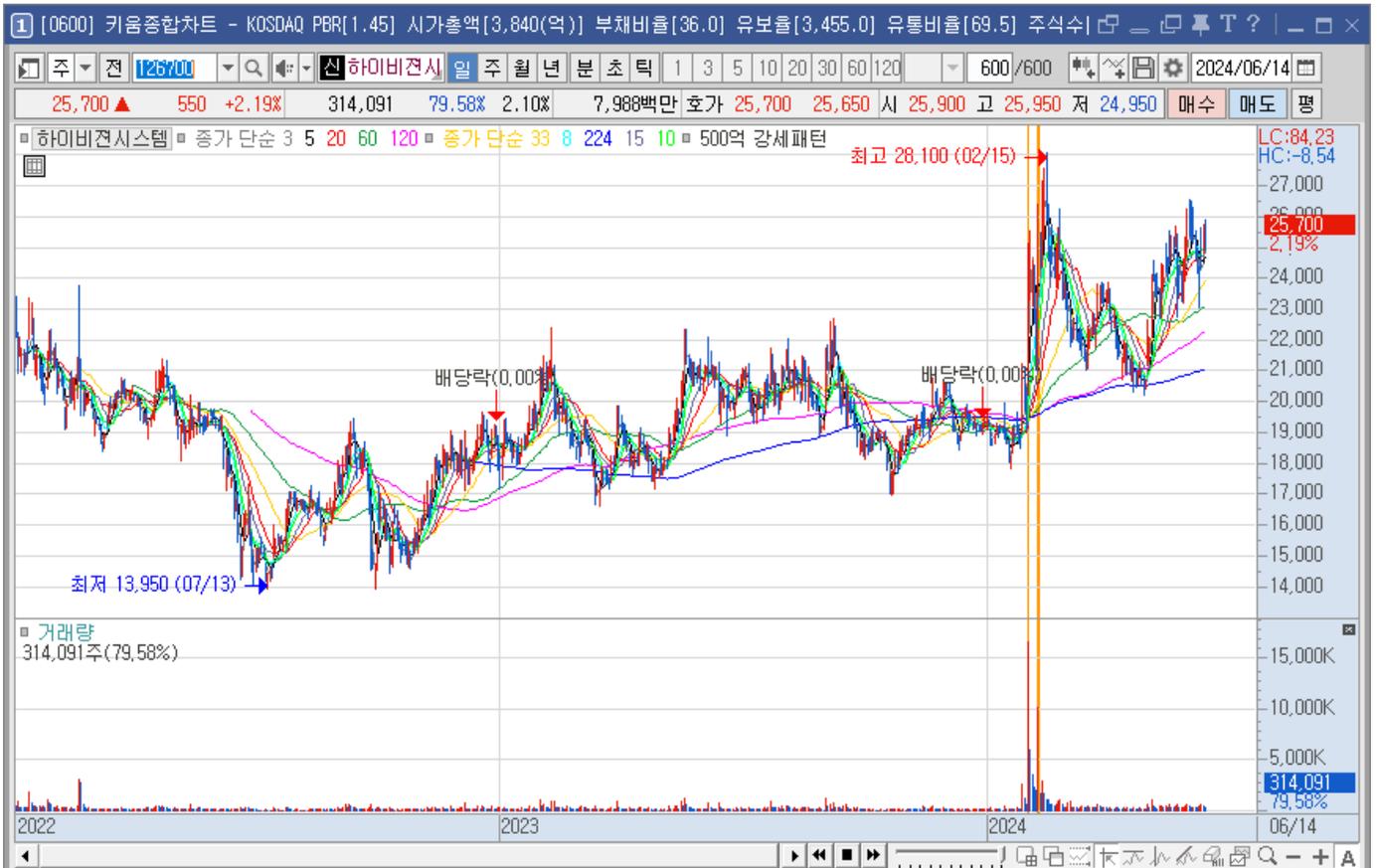


자료: 하이비전시스템, 키움증권

하이비전시스템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하이비전시스템, 키움증권



DN오토모티브

동아타이어와 합병을 결의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DN오토모티브:동아타이어=1:0.1558169 비율로 합병

DN오토모티브가 동아타이어와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법인인 DN오토모티브가 합병 후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동아타이어는 소멸된다. DN오토모티브:동아타이어의 합병가액은 80,583원:12,556원이고, 합병비율은 1:0.1558169주이다. DN오토모티브는 합병 신주로 약 214만주(+21%)를 발행한다. 6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마친 후 6월 27일 주주확정을 하면 8월 5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7월 19일~8월 4일에 걸쳐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8월 5일~25일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주식매수 청구가격은 DN오토모티브 80,762원, 동아타이어 12,450원). 합병기일은 9월 7일이고, 9월 5일~10월 6일에 걸쳐 소멸회사의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10월 7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한 선택

이번 합병은 DN오토모티브가 2022년 DN솔루션즈를 인수한 후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을 적용 받게 되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규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 DN오토모티브가 동아타이어의 지분 12.66%를 보유하고 있어 유예기간 2년이 지난 금년 중 이를 해소해야만 했다. 대안들 중 상장 자회사 요건인 30% 이상의 지분 확보보다는 우량한 재무구조(부채비율 22%)와 현금창출력(1Q24 영업이익률 9.5%)을 보유한 동아타이어를 흡수합병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합병 전 두 회사의 대주주 지분구조가 엇비슷한 바 합병 후 대주주 지분율은 51.1%로 큰 변화는 없고, DN오토모티브가 자기주식 13.6%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DN오토모티브는 합병과 함께 액면분할(500원100원)을 진행하는데, 9월 25일~10월 7일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변경 상장일은 10월 7일이다.

시너지가 크다고는 볼 수 없음. DN솔루션즈 상장 일정에는 큰 변화 없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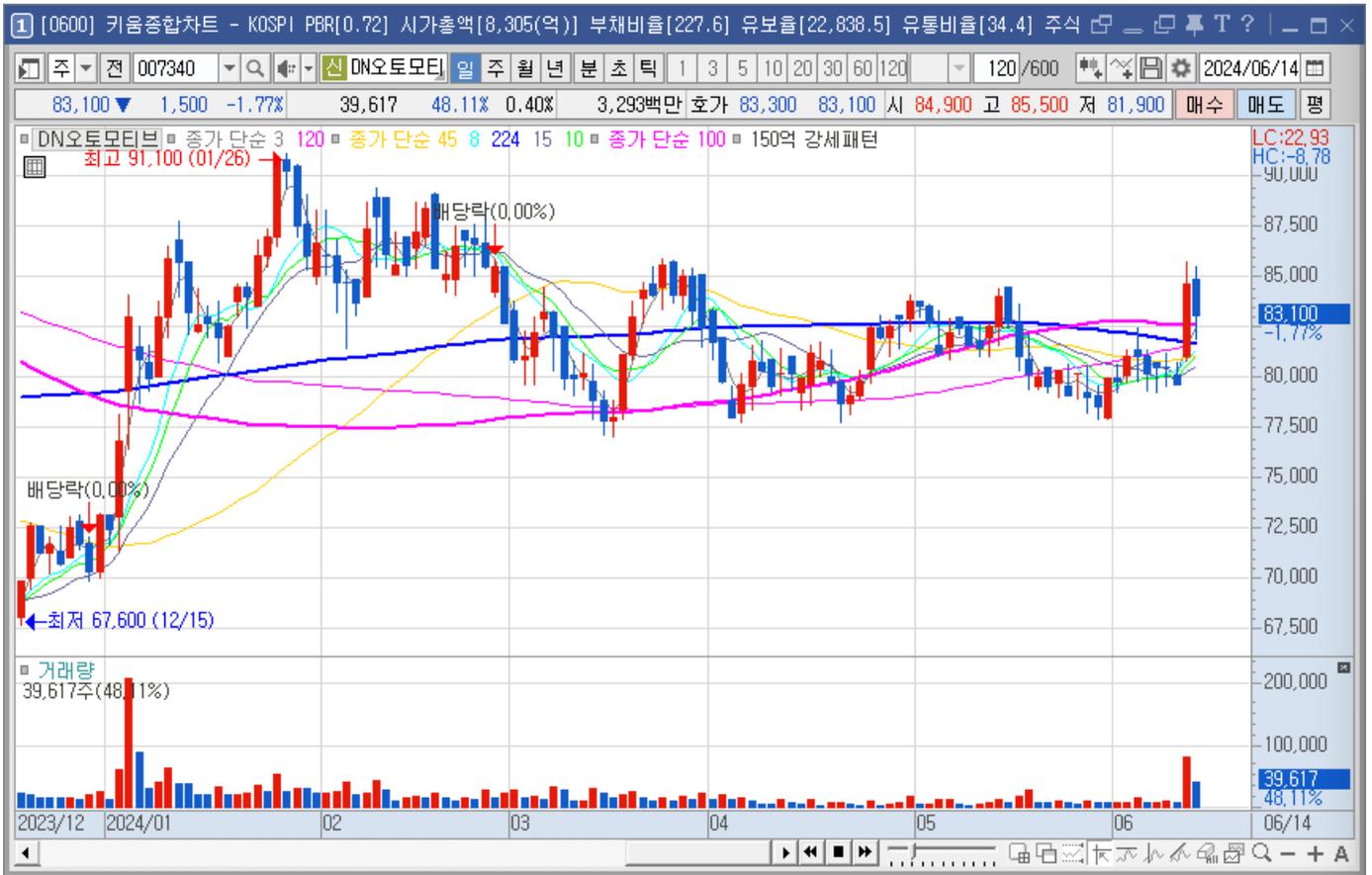
이번 합병으로 DN오토모티브의 방진제품과 동아타이어의 타이어 튜브간에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일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2017년 양사가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시너지의 폭이 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동아타이어 주주는 7.9%의 높은 배당수익률과 P/B 0.46배의 낮은 Valuation이 희석되는 것이 아쉽지만, 타이어 튜브의 저성장을 감안할 때 DN오토모티브 주주가 되어 성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다. 합병 반대보다는 DN오토모티브의 신주를 받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DN오토모티브의 주주는 동아타이어를 합병함으로써 부채비율(현재 연결/별도 각각 210%/148%합병 후 별도 101%)이 낮아지고, 타이어 튜브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본 배분 활동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자회사인 DN솔루션즈의 상장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DN오토모티브의 주가는 높은 펀더멘털(글로벌 3위, 10% 중반의 수익성) 대비 낮은 Valuation의 저평가된 상태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803	931	3,156	3,269
영업이익	70	90	422	490
세전이익	63	94	254	390
순이익	46	81	181	275
EPS	4,596	8,088	18,098	27,495
증감율	(30.2)	76.0	123.8	51.9
PER	5.6	8.9	3.5	2.7
PBR	0.4	1.0	0.7	0.6
EV/EBITDA	2.3	5.9	6.0	4.9
ROE	7.3	11.4	20.7	24.1
BPS	63,361	71,843	88,228	114,693
DPS	2,000	2,000	2,500	3,000





넥스틸

인내의 시간

[출처] 하나증권 박성봉 애널리스트

수출 중심의 에너지용 강관 전문 기업

넥스틸은 석유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 용도로 사용되는 미국석유협회인증(API) 유정관(OCTG)과 송유관 등을 제조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규모는 제한적이나 배관재나 구조용 강관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미국향 수출용접강관 수출에 있어 넥스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7.4%를 차지했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아시아 최대 외경인 전기용접 강관(ERW) 26인치 대구경 조관라인(연간 35만톤 생산능력) 증설을 완료했고 올해와 내년에 대략 570억 원을 투자해 포항에 Spiral과 Roll bending 조관라인 증설을 계획 중으로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을 포함한 대형구조물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급감, 2분기 영업실적은 다소 회복 전망

1분기 넥스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59억원(YoY -45.7%, QoQ -9.5%)과 10억원(YoY -98.8%, QoQ -96.4%)을 기록했다. 대구경 조관라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판매가 소폭 감소함과 동시에 미국내 에너지용 강관 공급 약화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 중심의 판매단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분기 한국의 전체 강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했는데 4~5월의 경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4.1%를 기록한 상황으로 넥스틸의 2분기 강관 판매 또한 수출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2분기 강관 주요 소재인 열연뿐만 아니라 후판 또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넥스틸의 판매단가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익률은 1분기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24년 매출액 5,309억원, 영업이익 566억원 예상

2024년 넥스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309억원(YoY -14.2%)과 566억원(YoY -64.0%)이 예상된다. 미국내 에너지용강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하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을 감안하면 상반기보다 미국의 에너지용강관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내 화석연료 개발 확대로 내년 미국의 에너지용강관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668	619
영업이익	0	0	181	157
세전이익	0	0	189	168
순이익	0	0	144	130
EPS	0	0	8,835	5,470
증감율	N/A	N/A	N/A	(38.1)
PER	0.0	0.0	0.0	1.3
PBR	0.0	0.0	0.0	0.4
EV/EBITDA	0.0	0.0	0.0	1.0
ROE	0.0	0.0	50.5	29.1
BPS	0	0	13,227	17,112
DPS	0	0	11,850	700





피코그램

생활 가전 시장 진출 본격화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1분기 양호한 실적

지난 1분기 매출액은 75억원(+13.0% yoy), 영업이익은 5억원(+28.0% yoy)으로 개선됐다. 정수기 매출이 소폭 성장에 그쳤지만, 수출 중심의 필터 판매(제품+상품)가 29% 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미국 주요 고객사인 Watts 필터 재고 감소로 인해 미국향 필터 수출이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수출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수기 부품 원재료 하락 및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향상됐다.

수출 호조 지속 전망

필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Watts 외 납품처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는 유럽과 남미 지역 판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진출도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 작년 중국 케네이처(정수 시스템 전문 기업)와 MOU 체결(5월)에 이어 카본블록 자동화 생산설비 수출 계약(12월)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하여 3분기부터 설비 납품 및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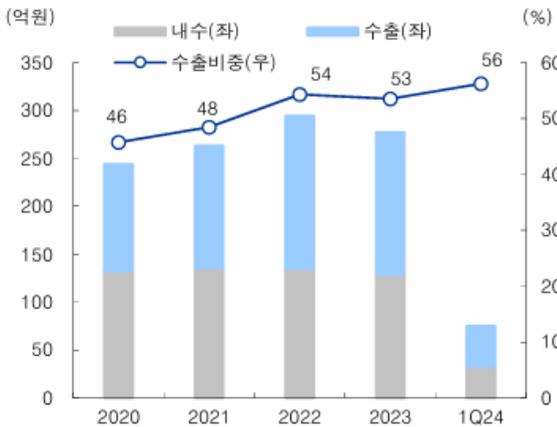
정수기 외 생활가전 판매 확대

작년 말 대용량 복합식 가슴기 출시에 이어, 필터샤워기, 폴더블 무선 선풍기 등 정수기 외 생활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1분기 관련 매출은 1억원 미만으로 미미했지만, 제품 다변화 및 판로 확대에 30억원 이상의 연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사 기준 매출은 작년 대비 약 23% 증가한 34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단위:십억원,배)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9	24	26	29	28
영업이익	1	3	3	3	2
세전이익	0	3	3	4	5
당기순이익	0	2	2	3	4
EPS(원)	14	184	177	175	242
증가율(%)	-74.1	1,228.6	-3.9	-0.7	38.0
영업이익률(%)	5.3	12.5	11.5	10.3	7.1
순이익률(%)	0.0	8.3	7.7	10.3	14.3
ROE(%)	1.3	17.8	11.9	10.9	13.3
PER	0.0	0.0	21.1	32.6	22.7
PBR	0.0	0.0	2.4	3.4	2.8
EV/EBITDA	11.5	3.9	16.8	23.0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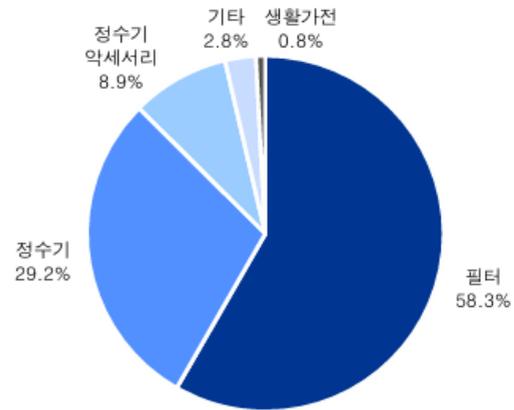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피코그램, IBK투자증권

그림 2. 품목별 매출 비중



자료: 피코그램, IBK투자증권
주: 기타는 부동산압대, 운송비, 제품설치료 등임

그림 3. 퓨리얼_대용량 복합식 가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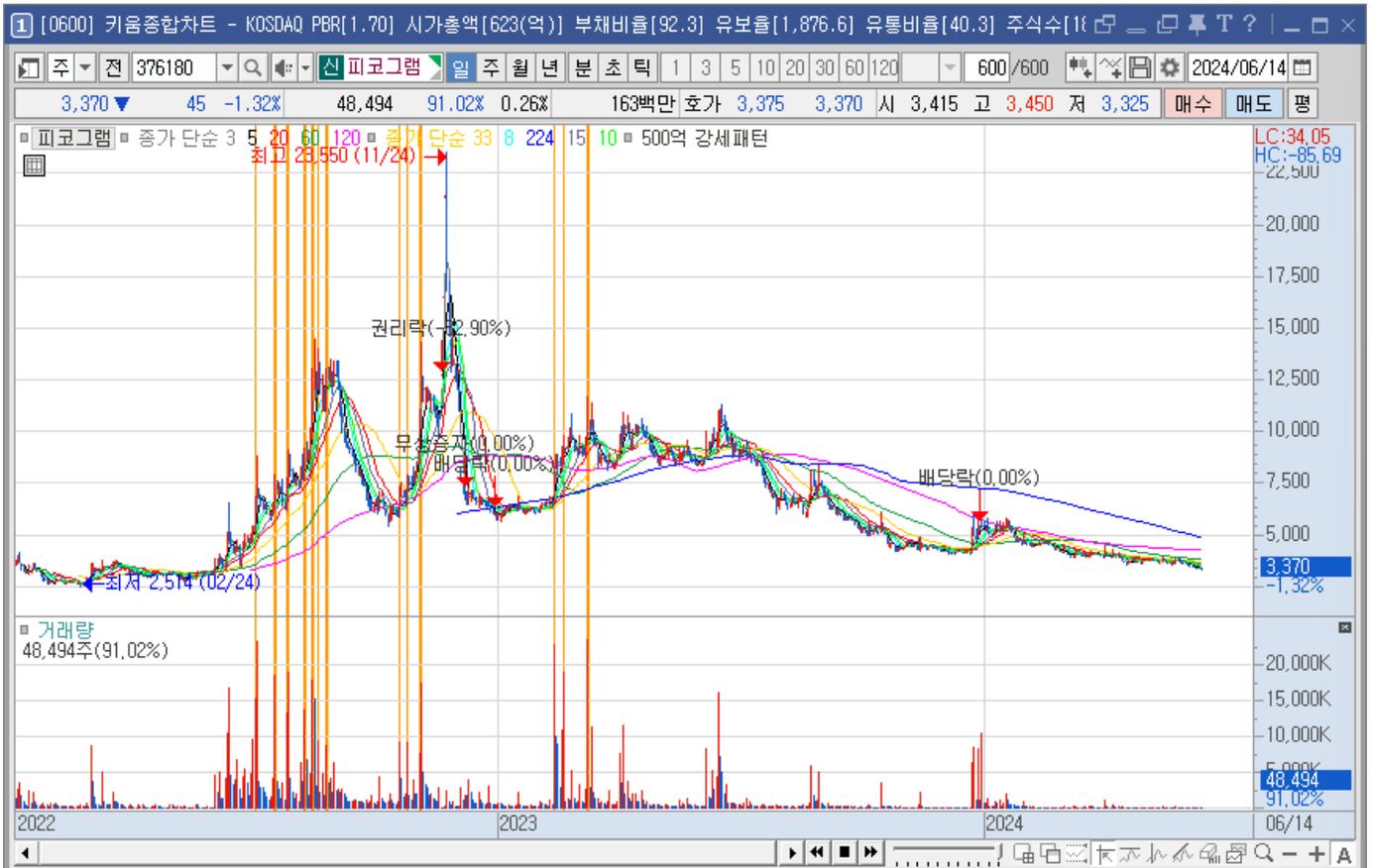


자료: 피코그램, IBK투자증권

그림 4. 퓨리얼_폴더블 무선 선풍기



자료: 피코그램, IBK투자증권



삼영
 전기차, ESS 콘덴서 핵심소재 국내 유일 양산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커패시터 필름 쇼티지, 하반기가 기대되는 이유

삼영은 1959년 설립된 콘덴서 및 포장용 필름 전문 제조 업체로 하반기 커패시터 필름 사업 본격화에 따라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기기 내에는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켜주는 콘덴서가 내장되는데 삼영은 콘덴서 핵심소재인 커패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하게 개발 및 양산 가능하다. 글로벌 커패시터 시장은 Toray를 포함한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지닌다. 삼영은 글로벌 M/S 10% 수준이지만 현재 커패시터 필름 쇼티지 현상 지속 및 연내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 양산 본격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PHEV(하이브리드 전기차), BEV(순수 전기차) 내 전장 커패시터 필름 적용처 증가에 따라 일본 경쟁사들은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일반 전자기기용 커패시터 필름도 쇼티지가 지속 중이다. 현재 커패시터 필름 생산 장비 리드타임은 여전히 3년 이상 소요되며 전기차용/일반용 커패시터 필름 수요는 지속 성장 중인 상황에서 2023년 커패시터 필름 CAPA 증설을 완료한 삼영의 수혜가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에 맞춰 CAPA 증설 완료, 가격도 긍정적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와 전기차의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며 커패시터 필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삼영은 뉴인텍, 성문전자 등 증착업체 향 필름을 납품하며 테스트를 통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차량 모델에 적용되는 구조이다.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필름인 2.3 μ m 필름 수요가 확대 추세로 높은 수요와 기술력에 따라 기존 필름 대비 가격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전자기기용 6 μ m 필름 가격이 1Q24 기준 5,774원/kg이며 BEV용 3.5 μ m 필름은 2배 이상, PHEV용 2.3 μ m 필름은 4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 μ m 필름 가격이 21년 4,321원 → 22년 5,725원 → 23년 5,780원으로 수요에 따라 가격이 지속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삼영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삼영의 기존 CAPA는 연간 430억원 규모였으나 23년 신규 공장 준공 완료를 통해 약 250억원 이상의 CAPA를 확보하였다. 현재 신규공장은 램프업 단계로 가동률이 50% 수준이며 올해 4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1Q24 연결 영업이익 16억원 중 적자 사업부 제외한 커패시터 영업이익 약 17억원 이상 시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규 공장 본격 가동 전 상황에서도 글로벌 수요에 따라 실적 성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4분기 신규 공장 가동 시 큰 폭의 실적 Level-up이 기대된다.

2024년 매출액 1,432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전망

삼영의 2024년 매출액 1,432억원(YoY +16.8%), 영업이익 114억원(YoY +90.1%)로 예상한다. 기존 적자 사업부였던 PE랩 생산 중단 및 우유팩 사업부 매각에 따라 수익성 향상 가능한 상황이며 커패시터 필름 수요 확대 및 쇼티지 현상 지속과 신규 공장 본격 양산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18	133	135	123
영업이익	1	3	3	6
세전이익	1	3	3	13
순이익	0	3	3	19
EPS	6	102	79	548
증감률	흑전	1,600.0	(22.5)	593.7
PER	432.5	29.4	30.5	8.2
PBR	2.0	2.1	1.6	2.2
EV/EBITDA	14.5	14.6	13.0	14.8
ROE	0.5	7.1	5.2	27.9
BPS	1,298	1,434	1,525	2,051
DPS	0	0	0	20





삼성물산

안정적 성장 진행 중

[출처] NH투자증권 김동양 애널리스트

안정적 성장 진행 중

삼성물산은 캡티브 강세의 건설과 증설 진행 중인 바이오가 실적 이끄는 가운데, 기타 부문 이익체력 강화 진행 중. 2022년 사상 첫 영업이익 2조원대로 레벨업 이후에도 2025년까지 연평균 11% 성장 전망. 2024년 기존 핵심사업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바이오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투자 확대 계획(1.0조원 이상)

하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 통해 주주가치 제고 기대. 제3기 3개년 주주환원정책(2023~2025년) 시행 중이며, 2026년까지 보유자사주 전량 소각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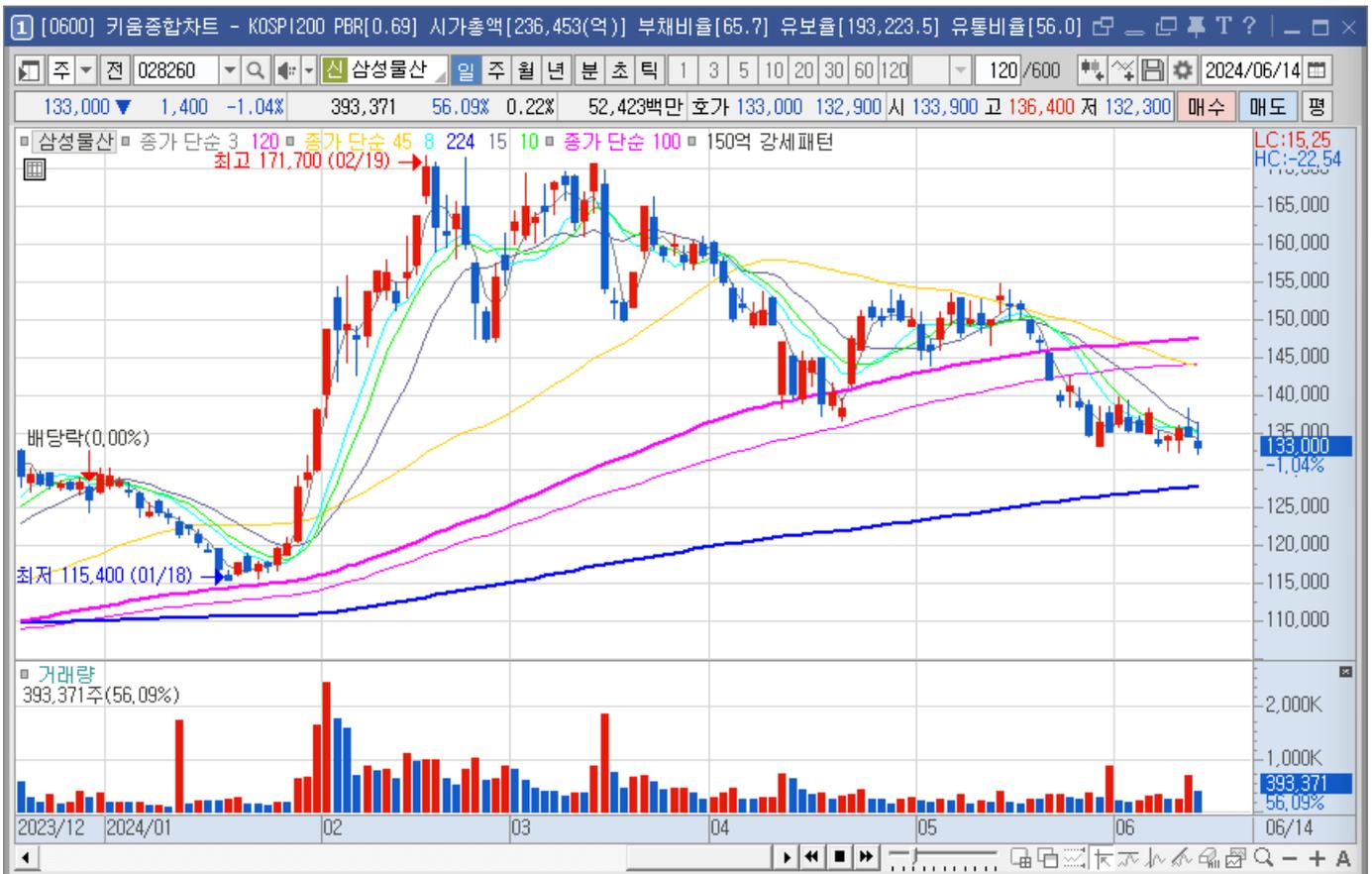
2025년으로 기준연도 변경, 상장계열사 주가 변동, NAV 대비 목표할인율 변경(35%→40%) 등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23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하향 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

2분기 실적 Preview: 시장 컨센서스 충족 전망

삼성물산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조5,850억원(+9% y-y), 영업이익 7,884억원(+2% y-y)으로 시장 컨센서스 충족 전망건설(영업이익 3,183억원, +4% y-y)은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안정성 유지 통해 전분기 수준 수익성 유지 전망. 패션(588억원, +3% y-y), 식품(418억원, +13% y-y), 레저(147억원, +22% y-y)도 각각 수입상품 호조 및 온라인 강화, 식자재 유통 매출 확대, 내방객 증가 및 파크 상품력 강화 등으로 실적 성장 전망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41,896	45,605	44,025	41,896
증감률	-2.9	8.9	-3.5	-4.8
영업이익	2,870	3,199	3,424	3,615
증감률	13.5	11.5	7.0	5.6
영업이익률	6.9	7.0	7.8	8.6
(지배지분)순이익	2,218	2,443	2,831	3,019
EPS	11,907	13,543	15,900	16,955
증감률	9.0	13.7	17.4	6.6
PER	10.9	10.0	8.5	8.0
PBR	0.7	0.7	0.6	0.6
EV/EBITDA	7.9	7.6	6.9	6.2
ROE	7.3	6.9	7.5	7.5
부채비율	65.7	62.3	57.5	52.8
순차입금	-810	766	-1,467	-3,891

단위: 십억원, %, 원, 배



씨티케이
 美 OTC & 친환경 소재 사업 확장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2Q24 Preview: 전년 2분기 매출액을 초과한 수주 회복

- ① 24년 1분기 실적: 주요 고객사 매출 지연으로 전년대비 매출액 24% 감소, 캐나다 바이오 R&D 테스트 및 샘플 비용으로 인한 7억원이 발생하여 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 ② 24년 2분기 전망: 매출액 284억원(+18.7% YoY), 영업이익 23억원(+66.5% YoY)이 예상된다. 동사 2분기 수주 현황은 2분기 시작 전부터 전년 2분기 매출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진율 높은 기존 고객사 리오더+용기 매출 증가, 미국 대형 유통사 퓨어 뷰티 PB라인 신제품 11개 발주 영향(12월말 매출 반영 예정)에 기인한다. 신규 고객사로 명품 브랜드 글로벌 출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전망: 북미 OTC 사업 확대 & BIO CANADA 신규 매출 발생

24년 하반기 전망: 동사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이 뚜렷할 전망이다. 동사가 제시한 2024년 매출 성장률 목표는 15~20% YoY, 영업이익률 목표는 7~8%이다. 2025년부터는 두 자릿수 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 북미 시장의 OTC 사업 확대: OTC 제품 수요가 높아져 본격적으로 OTC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3년 후에는 매출의 30% 이상 OTC 매출액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TC 제품은 자체 포물러를 사용하여 마진율이 40~50%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 ② CTK BIO CANADA: 2024년 매출 목표는 300만 달러이며, 영업이익은 BEP 수준을 목표하고 있다. 주로 캐나다와 미국 정부 중심으로 공급 계약 진행 중이고,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계약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매출액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Event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전망

2024년 동사 PER은 15배로 거래되고 있다. ODM사 평균 PER 20배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유는 1분기부터 타 ODM사 대비 실적 성장이 낮은 부분에 기인한다. 2분기 부터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긍정적인 Event가 실적에 반영될 경우 주가 상승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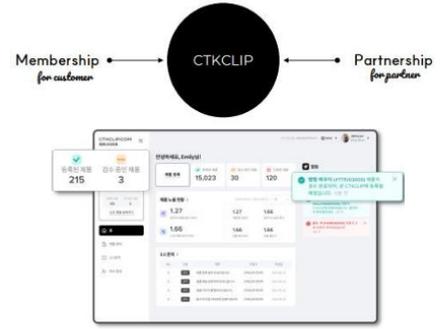
계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114	69	89	105
영업이익	-12	-15	3	8
지배순이익	-1	-18	7	10
PER	-205.9	-9.1	16.5	14.8
PBR	1.0	1.0	0.7	0.8
EV/EBITDA	-20.1	-11.0	8.0	6.1
ROE	-0.5	-11.0	4.4	6.0

[그림 8] CTK 주요 고객사



자료: 씨티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CTKCLIP.com



자료: 씨티케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